

법전 중정예하는 지난 25일 해인총림 해인사 퇴설당에서 제33대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사진 오른쪽)의 예방을 받고 수행가풍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형주 기자 cooljo@bulgyo.com

## “수행가풍 확립 힘쓰시라” “교시를 잘 받들겠습니다”

법전 중정예하,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 예방받아

제33대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이 당선 후 중정예하를 진경하고 종단발전을 위한 의견을 경청했다. 자승스님은 지난 25일 해인총림 해인사를 찾아 조계종 법전 중정예하를 예방했다. 자승스님은 대적광전 참배 후 중정예하가 주석하는 퇴설당으로 향했다. 자승스님의 예방을 받은 법전 중정예하는 “총무원장 지관스님

이 종단의 안정과 원용화함에 힘썼다면 스님은 수행가풍을 확립해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승려노후복지 등 복지사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에게 수행과 복지에 비중을 둔 종단운영을 당부했다. 자승스님은 “중정스님의 교시를 잘 받들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법전 중정예하는 “종단이 안정된

상에서 수행가풍이 확립된다면 종단의 앞길이 탄탄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해인사 전 주지 현응스님, 해인사 총회의원 대오·도영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법진스님, 해인사 박물관장 관암스님 등 20명의 스님들이 배석했다. 해인사=김형주 기자

## 제33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11월 5일 오전 11시 조계사서 봉행

제33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취임법회가 오는 11월5일 오전11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취임법회에는 법전 중정예하를 비롯한 원로대덕 스님, 32대 총무원장 지관스님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석해 취임을 축하할 예정이다. 조계종 총

무원장 취임법회 봉행위원회(위원장 장적스님, 총무원 기획실장)는 “총무원장 취임법회를 총무원 인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5일 열기로 했다”며 “종단의 화합과 자비실천을 주제로 한 부대행사도 검토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한편 ‘총무원 인수위원회’(가칭)는 효율적인 총무 인수와 중앙총회와의 공조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임시기구다. 화엄회 무량회 무차회 보림회 등 4개 종책모임에서 각 5명씩 추천한 총회의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영담스님, 부위원장은 원담스님과 태연스님이 맡았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26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총무원 각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 “본분 충실하면 만사 성취”

제32대 총무원장 지관스님, 본지 퇴임 인터뷰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사진)이 본지 사장 선목스님과 인터뷰를 갖고 퇴임에 관한 소회를 밝혔다.

지관스님은 지난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을 발원으로 ‘종풍진작과 수행승가 진흥’ ‘대중원용살림 회복’ ‘전법과 복지 진흥’ ‘사회와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수행승가’를 4대 비전으로 정하여 매년 사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32대 집행부의 핵심사업이었던 결계와 포살에 대해 “모든 대중이 공화(共和)를 수행하는 승가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여법하게 회복하는 일이며, 나아가 떳떳하고 위대한 공동체전통의 수행승가를 중흥하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종도들이 힘을 다하여 자신들의 위대한 유산으로 계승해 가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지난 해 여름 국민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8·27 범 불교도 대회에 대해서는 “불교의 자주권 수호를 위해 역사상 조유로 불교계 모든 종단과 단체가 힘을 모은 대회였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력 또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도되는 종교갈등 등은 국민통합과 사회안정에 매우 위험한 요소”라며 “종교분쟁은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관스님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의 다양한 종교관향 근절 교육,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등을 제시하며 “그것이야말로 불교의 자주권 수호요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정



도(正道)”라고 역설했다.

퇴임 한해 전부터 항간에 돌았던 재임설에 관해서는 “재임에 관한 생각은 처음부터 추호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종도들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는 “각자 본분에 충실하면 모든 일은 성취되는 것”이라며 “출가공동체인 승가대중에 있어 활달하고 역동적인 대중이 바로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고 답했다.

또 “재행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부지런히 각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라며 불자와 국민들에 대한 법문도 덧붙였다.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퇴임식은 10월30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거행된다. (10월27일 현재)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퇴임인터뷰 4·5면

제32대 집행부 성과  
종책자료집 ‘발간’

제32대 조계종 총무원 집행부의 사업 진행내용과 성과를 담은 자료집 <총무원장 지관스님과 함께 한 조계종의 4년>이 지난 27일 발간됐다.

중앙총무기관 국장 스님 및 주요 차·팀장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가 펴낸 이번 자료집에는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임기 4년간의 총무행정 성과와 기록이 담겨 있다. ‘제32대 집행부 정책기조 및 연도별 핵심사업 총괄표’를 시작으로 △종단 정체성 확립 △수행중흥 진작 △전법 교화 △한국불교 중흥 기반 구축 △한국 불교 세계화 △불교문화 진흥 △불교 자주권 신장 △남북불교교류 △대사회 복지 △총무행정 등 분야별 성과를 기술했다.

이와 함께 ‘향후 주요 과제’를 통해 앞으로 시행해야 할 핵심 정책을 정리했다. 또한 별첨자료로 ‘주요연표’ ‘총무원장 주요 내외빈 면담 일지’ ‘32대 집행부 생산자료 목록’ 등을 수록했다.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스님은 “자료집에 소개된 32대 집행부의 추진사업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종단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영섭 기자

## 고암 정병례의 새기



사계

꽃길따라 물길따라 달빛따라 대자연의 품에 안겨...

社告

## 몽골·라오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합니다

(사)지구촌공생회와 본지는 ‘몽골·라오스에 교과서 및 책·겉상 보내기’ 공동캠페인을 벌입니다. 불자들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 최 : 불교신문사, (사)지구촌공생회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기 간 : 2009년 11월30일까지  
 목 표 액 : 5000만원

후원방법 : 2만원-교과서 및 도서 후원  
 8만원-책·겉상 1세트 후원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예금주: (사)지구촌공생회

문 의 : (사)지구촌공생회 (02)455-9596

불교신문사(02)733-1604



해인총림,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대법회 2면

최문순 의원이 화계사서 2만배 하는 까닭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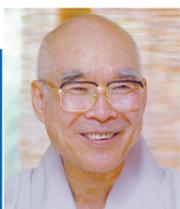
## 백양사 야단법석에서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황벽스님이 어느 날 백장선사에게 물었다. “대대로 내려오는 禪의 진수를 어떻게 가르치렵니까?” 백장선사가 잠자코(良久)있자 황벽이 다그치듯 말했다. “스승께서는 뒷사람들로 하여금 禪을 단절시키지는 마십시오.” 스승은 한 마디를 던지고 방장실로 들어갔다. “자네가 禪을 단절시키는 사람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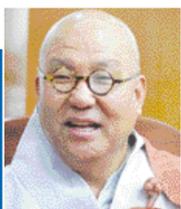
修行의 目的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법을 논하라, 아니면 침묵하라.” 우리는 戲論(戲論)과 침묵에서 벗어나 법을 논하고자 합니다. 여기 열린마당에 모여 깨달음의 길 을 찾습니다.

### 【주제와 강사】

- ①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 고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 ②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시몽스님(백양사 주지)
- ③ 생명평화운동을 통한 깨달음의 길 -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 ④ 동사섭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용타스님(사단법인 동사섭 이사장)
- ⑤ 간화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 - 월암스님(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장)
- ⑥ 초기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 - 각목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 ⑦ 조사어록을 통한 깨달음의 길 - 향봉스님(역산 사지암 주지)



고우스님(조계종 원로의원)



시몽스님(백양사 주지)



도법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용타스님(사단법인 동사섭 이사장)



월암스님(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장)



각목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향봉스님(역산 사지암 주지)

### 야단법석 일정표

	오전 8-11시	오후 2-5시	오후 7-9시
11월 21일 (첫째 날)	.	고우스님	시몽스님
11월 22일 (둘째 날)	각목스님	용타스님	용타스님
11월 23일 (셋째 날)	도법스님	월암스님	월암스님
11월 24일 (넷째 날)	시몽스님	향봉스님	향봉스님
11월 25일	도법스님	.	.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집 결 : 2009년 11월 21일(토) 낮 12시
- 입 재 : 2009년 11월 21일(토) 오후 2시 (백양사 방장 수산 큰스님 입재 법어)
- 회 향 : 11월 25일(수) 오전 11시(4박 5일)
- 대상자 : 사부대중 누구나, 선착순 200명
- 등참비 : 출가자 - 10만원 / 재가자 - 20만원
- 접수계좌 : 농협 645117-51-017109 (예금주: 백양사)
- 주 최 : 고불총림 백양사 ■ 후 원 : 현대불교신문사
- 접수처 : 백양사 총무소
- 문 의 : ☎ 061)392-7502, 전출 061)392-2081
- 동정기이므로 개인침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고불총림 백양사**